

가이드북

The 9th JEJU KOREA



East Asia Research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제9회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

'중요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공동체 복원'

2025년 9월 17일(수)~9월 20일(토)

제주오리엔탈호텔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



한국농어촌유산학회

•



제주관광공사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Contents

행사개요	03
환영인사	04
프로그램	07
제주 방문 안내	11
견학 프로그램	12
일반 안내	14
제주발담 & 제주해녀	18



행사개요



행사명

제9회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ERAHS) 국제컨퍼런스
The 9th Conference of East Asia Research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ERAHS]

일자

2025년 9월 17일(수) ~ 20일(토)

장소

제주오리엔탈호텔 및 제주도 일대

주제

중요 농어업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공동체 회복
(Sustainable Conservation of IAHS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규모

약 250명 (한중일 농업유산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언어

한-영, 한-중, 한-일 / 플리토 Ai 동시통역 시스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Korea ERAHS), 한국농어촌유산학회(KRHA)

주관

제주관광공사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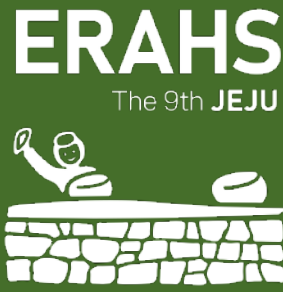
IGSNRR, CAS (Institute of Geographic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Research,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HSB-CAASS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Branch of the China Association of Agricultural Science Societies)
J-GIAHS (Japanese GIAHS Network)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ERAHS
The 9th JEJU

환영인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동아시아농어업유산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중·일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동아시아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아시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제주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자리는, 오랜 시간 계승되어 온 전통 농어업 시스템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
농어업 유산 보전과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주는 청정 자연과 더불어 선인들의 지혜가 깃든 다양한 농어업 전통을 간직한 땅입니다.
특히, 제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과
세계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어업’을 동시에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농어업 유산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
공동체 회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제주도정은 다채로운 농어업 유산을 계승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아시아 농어업유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영인사



윤원근

ERAHS 2025
공동조직위원장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2025년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 컨퍼런스는 2014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중국, 일본, 한국이 해마다 순차적으로 개최해왔으며, 농어업유산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해온 소중한 국제 협력의 장입니다.

2019년 한국 하동에서의 개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만남이 중단된 시간도 있었기에, 6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금번 제9회 컨퍼런스는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나라가 각각 세 차례씩 컨퍼런스를 주최한 순환의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동아시아 농어업유산협의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보다 심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열리는 제주도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류의 전통지식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중요 농어업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올해의 주제는 바로 제주라는 공간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이 농어업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 사회와 환경, 전통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주에서의 시간들이 여러분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행사일정

2025년 9월 17일(수)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0:00-22:00	컨퍼런스 참가등록	1층 로비
16:00-18:00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자체 간담회	사라홀1

2025년 9월 18일(목)

일정	주요내용	비고
09:30-10:20	개회식 -개회사: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환영사: 제주특별자치도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축하공연 및 단체사진 촬영	한라홀 (동시통역)
10:20-11:40	기조연설 -Jeremie Mbairamadji (FAO GIAHS 코디네이터) -다케우치 교수(ERAHS 명예대표) -민칭웬 교수(중국 ERAHS 대표) -윤원근 교수(한국 ERAHS 대표)	
11:40-13:00	점심 식사 & 포스터 세션 및 전시 관람	일출홀 및 로비
13:00-14:40	Session I : 농업유산지역의 생태계서비스와 보전	사라홀2(영어전용)
	Session II : 농업유산지역 농산물의 인증, 브랜드, 홍보	한라홀(동시통역)
14:40-15:00	휴식 (포스터 세션 및 전시 관람)	일출홀 및 로비
15:00-17:30	Session III : 한중일 3국의 농어업유산 정책 비교분석	사라홀2(영어전용)
	Session IV : 농어업유산관광 및 지자체 농어업유산 사례	한라홀(동시통역)
17:30-18:30	휴식 (포스터 세션 및 전시 관람)	일출홀 및 로비
	중앙정부 ERAHS 연석회의	사라홀1
18:30-20:00	환영 만찬 축하공연, 환영사, 만찬	한라홀

2025년 9월 19일(금)

일정	주요내용	비고
09:00-10:20	기조발표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중국 농업농촌부, 일본 농림수산업성, 한국 해양수산부	한라홀(동시통역)
10:20-12:00	Session V : 후계세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사라홀2(영어전용)
	Session VI : 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	한라홀(동시통역)
12:00-12:40	폐회식 - 결과보고, 차기개최지소개	한라홀(동시통역)
12:40-18:30	점심 식사 및 현장 견학 I -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동화마을, 제주해녀박물관, 질그랭이센터 외	그룹별 버스 이동
18:30-20:00	네트워킹 만찬	인근 로컬 식당

2025년 9월 20일(토)

일정	주요내용	비고
09:30-10:30	제 19차 ERAHS 워킹 미팅	사라홀1
10:00-	현장 견학 II 제주 해녀 축제 참가	개별 신청
15:00-	호텔 복귀	



호텔 2층 전체 / 행사구역



<한라홀> 개막 및 폐막식, 환영 만찬, 세션 II, I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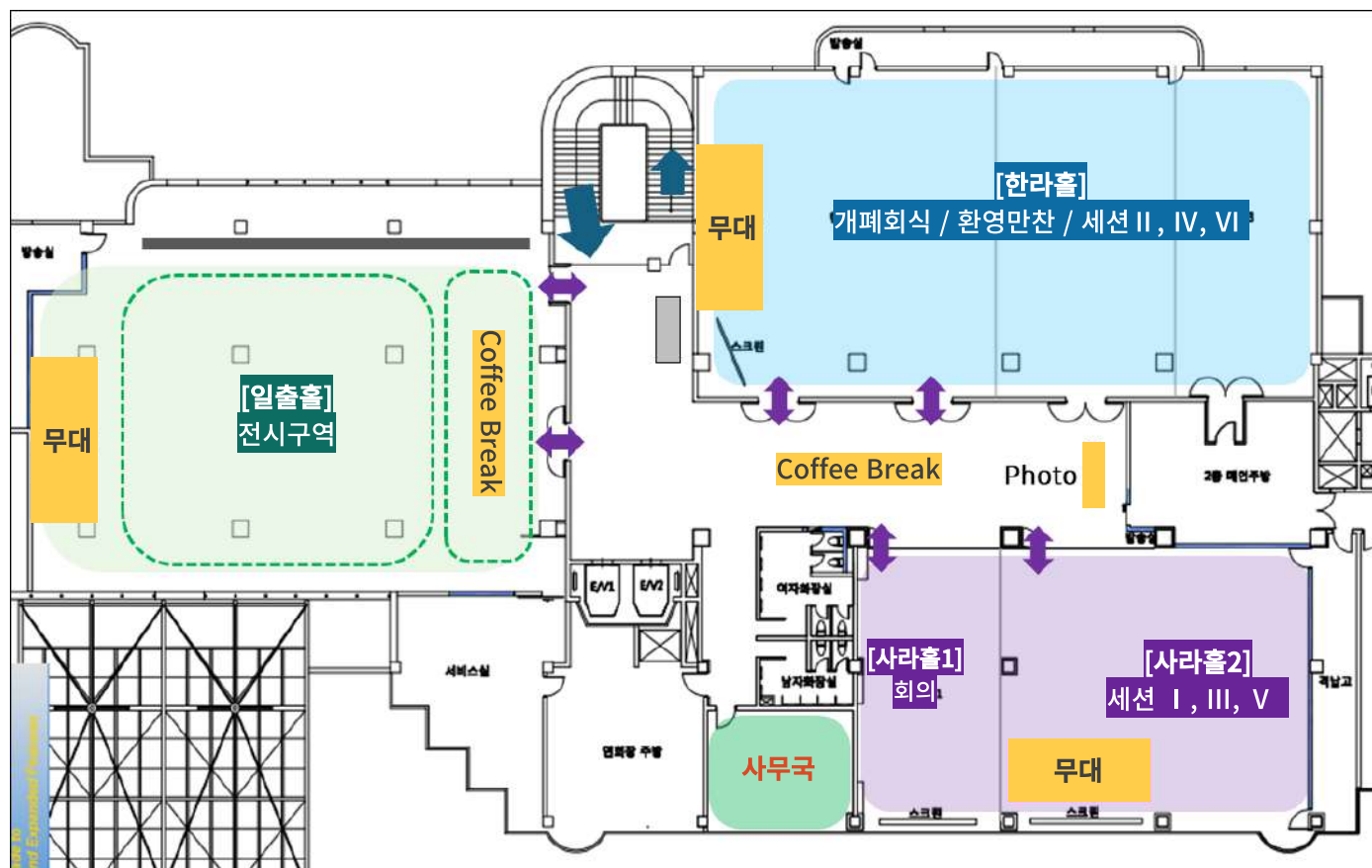
<사라홀2> 영어세션 I, III, V



<일출홀> 포스터 및 국내외 농어업유산 관련 전시

행사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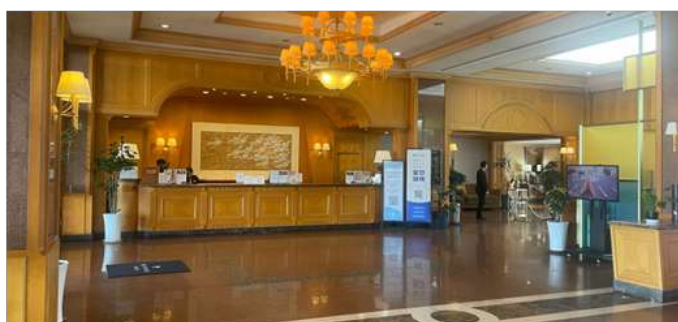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 제주시 탑동로 47) 2층 전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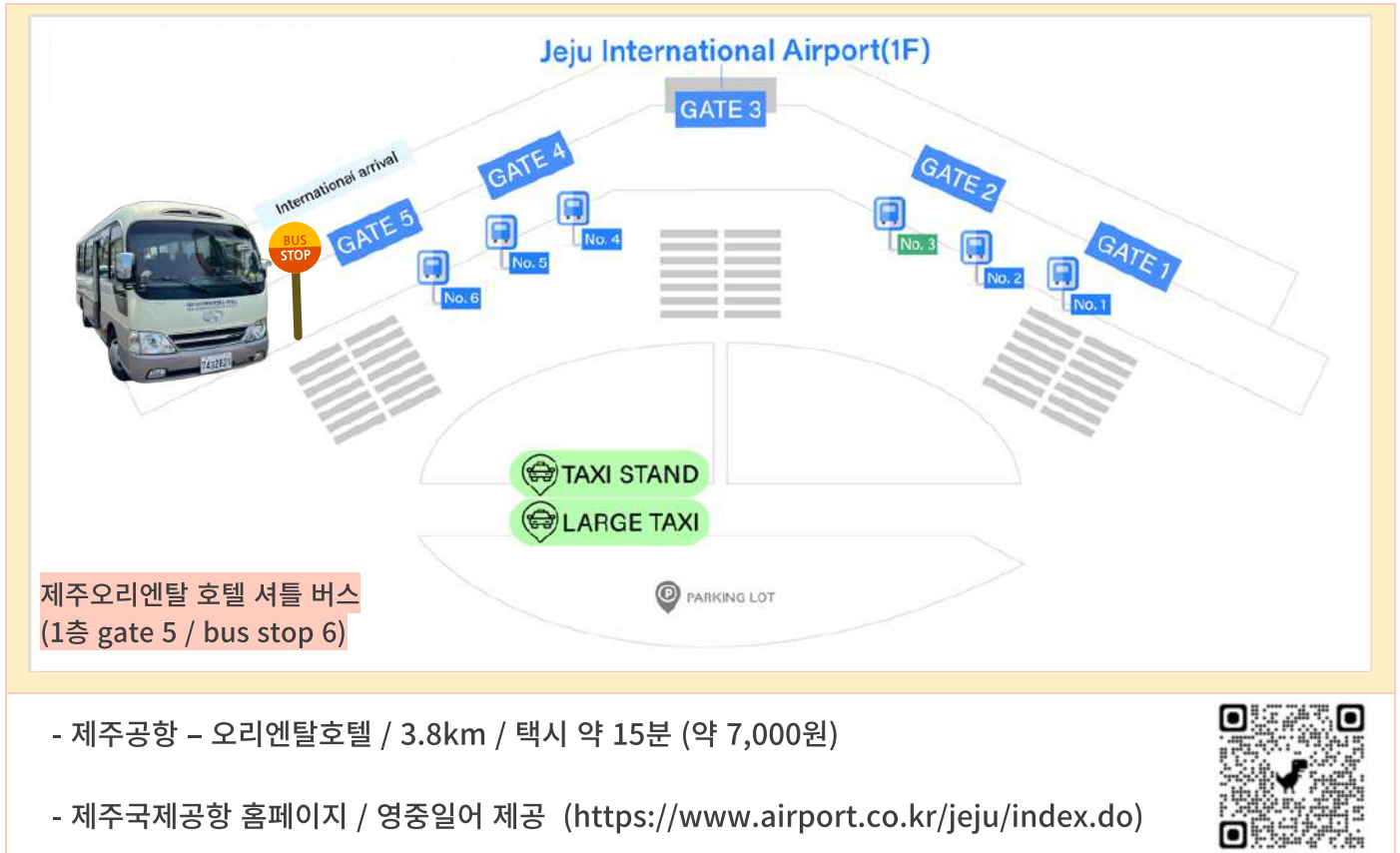
ROOM

제주오리엔탈호텔 3~10층

로열스 스위트 포함 객실 320실 규모 / 체크인(1층 안내데스크), 참가등록(1층 로비)



국내선 도착 1층



셔틀버스 시간표

9월 17일(수) 공항 → 호텔		9월 19일(금) 호텔 → 공항		9월 20일(토) 호텔 → 공항	
호텔 셔틀버스	ERAHS 셔틀버스	호텔 셔틀버스	호텔 셔틀버스	호텔 셔틀버스	ERAHS 셔틀버스
11:55, 12:25 12:55, 13:30 14:00, 16:00 16:30, 17:00	13:00 ~ 21:00 시간별 운행	10:00, 10:30 11:00, 13:00 13:30, 14:00 16:00, 16:30, 17:00	10:00, 10:30 11:00, 13:00 13:30, 14:00 16:00, 16:30, 17:00	10:00, 10:30 11:00, 13:00 13:30, 14:00 16:00, 16:30, 17:00	08:00 ~ 16:00 시간별 운행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은 돌의 고향인 제주도와 체계적인 돌 문화를 보여 주는 박물관이자 생태 공원. 제주도의 모든 석상들을 다 전시해 놓았을 정도로 방대하며, 공원 전체가 제주도의 탄생 신화인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돌과 공존하는 제주돌문화 중심의 모든 요소들을 갖춘 대표적인 장소.



제주해녀박물관

기원 전부터의 역사를 가진 제주의 해녀 문화를 중심으로 해양, 어촌, 민속, 어업 등에 관한 자료 전시. 박물관 안팎의 전시물들은 모두 해녀들이 기부한 것으로 실제 해녀의 집도 기부 받아 전시관 안에 옮겨와 있으며, 음식 문화와 양육, 반어반농, 영등굿 문화 등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음. 제주 여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해녀문화의 대표 전시공간.



질그랑이 센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협동조합이(주민477명)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지역 소통의 중심지로, 지역문화 색을 찾아가고 주민 간 연대감을 키워가는 대표적인 제주형 복합문화공간. 여행자센터, 베이커리카페, 로컬푸드판매, 숙박, 워크숍 등을 운영.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선정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농촌관광마을



숨비소리길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제주 해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발담길로 ‘하도리 발담길’, ‘숨비소리 길’이라 한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참았던 숨을 한번에 내뿜는데 그 소리를 가리켜 숨비소리라고 한다. 또 과거 제주의 해녀들은 물질 외에도 밭일을 겸하며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그 해녀들이 물질과 밭일을 하기위해 지나다녔던 길을 숨비소리길이라고 한다.



제주동화마을 (제스코관광마트)

제주동화마을은 제주동부오름군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오름 능선의 선형과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한 자연친화적인 공원. 제주의 나무(木), 제주의 돌(石), 제주의 문화와 신화(人), 사계절 꽃(花)을 테마로 설계된 개방형 공원으로 6차산업 연계 쇼핑몰 보유.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정보

날씨 정보

최저 24.3 °C / 최고 30.8 °C / 평균 27.6 °C
(지난 3년간 9월18~19일 제주시 평균기온)

전압

한국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220V, 주파수는 60Hz
(110v 전용제품은 별도의 변압기 필요)

면세점

- 1인 1회 : 800달러 (연간 구입 가능 회수 : 총 6회)
 - 주류 : 1인 1회 2병 (총 2L, \$400 이하)
 - 담배 : 1인 1회 1보루
 - 향수 : 1인 1회 100ml
- (주류, 담배, 향수는 한도액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음)

긴급전화

- 건강 등 응급상황 119
- 안전 및 범죄위험 112
- 제주 안전 콜 +82-64-710-1911 *사고 등 긴급상황, 24시간 다국어 지원

컨퍼런스 통역

플리토Flitto 시스템 / 한라홀(개막식, 포럼세션)

- AI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시스템
- 전세계 1,400만 글로벌 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언어 인공지능 LLM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 및 AI동시통역 시스템

실시간 통역 과정(딜레이 0~2초)

마이크 → 현장 콘솔 → 플리토 서버 → 현장콘솔(앱) → 개인 기기
(리시버, 휴대폰,패드, 노트북 등)

사용자 준비물

- 기본 : 리시버(입장시 입구에서 수령 및 사인). 언어별 채널 선택 / 음성 전용
- 자막 : 개인 기기(휴대폰,패드, 노트북 등)를 활용한 QR접속, 해당 언어 선택
(해당 앱에서 음성 추가할 경우, 리시버 대신 개인 이어폰 사용)

참가자 식사 (제공)

9월 18일	점심 (B1 레스토랑)
	환영만찬 (한라홀)
9월 19일	현장견학 점심(중국, 일본, 한국 그룹별)
	현장견학 저녁(네트워크 만찬. 견학 참가자 전체)

호텔인근 식당 정보 (자율)



1	카고 크루즈 / 비건 중심	퓨전
2	불강 / 육류 구이	한식
3	탐동경이네 / 갈치조림 외	한식
4	석촌 식당 / 전복, 해물 기반	한식
5	노량진 / 해물, 생선, 회	횃집

6	늘소담 / 뽕소라, 전복, 고사리 기반	토속
7	한라 돈가스 / 돈가스	양식
8	혼바띠국수	국수
9	화진전복 / 전복 기반	한식
10	카페 아네스 / 요거트, 커피 외	디저트

제주오리엔탈호텔 주변 관광지역



A. 탐동광장



B. 탐동 해안산책로



C. 제주목 관아



D. 칠성로 쇼핑거리 입구



E. 산지천 - 탐라문화광장 - 동문시장

제주 관광 정보(VISIT JEJU)
영,중,일어 제공
<https://www.visitjeju.net/kr>





손으로 빛은 농업유산 ‘제주밭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한반도 최남단의 화산섬, 제주도. 그 지형·지질·기후특성은 이 섬의 척박한 농업환경 그 자체다. 하지만 섬사람들은 토양에서 골라낸 돌을 이용하여 22,000km가 넘는 밭담을 일일이 손으로 쌓았다. 그렇게 탄생한 제주밭담은 바람과 토양유실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며, 빼어난 농업문화경관으로 제주섬의 미학을 대표한다. 그리고 농지정리·도시화 확산 등 숭한 도전을 감내하며 1,000년이 넘도록 제주섬의 농업을 지켜왔다. 또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밭담의 보존·활용증진으로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 유산명칭 :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 대 상 지 : 제주특별자치도 밭농업 지역
- 지정일자 : 국가중요농업유산 2013. 1. 25
세계중요농업유산 2014. 4. 1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천 년 세월을 버텨낸 발담

발담에는 제주사람들의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다. 돌투성이 토지를 일구어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와 돌과 바람 많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소산이 발담이다. 크고 작은 돌들의 적절한 맞물림을 이용해 쌓아 올려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구멍 송송 뚫린 발담은 바람을 갈라 부드럽게 만든다. 그 오랜 세월을 거센 바람에도 곳곳이 버텨내며 서 있는 발담의 비밀인 셈이다.

다양한 유형의 발담들

제주발담은 자리한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쌓았기 때문에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보편적인 형태가 ‘외담’이며, 돌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접담’이나 ‘잣담’, 경사가 있는 개간지에서는 ‘잡굽담’ 등 다양한 형태를 선보인다.



외담



접담



잣담/잣질



잡굽담



제주섬을 수놓은 흑룡만리

밭담이 쌓이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제주섬은 밭담으로 수놓은 모자이크 모양을 하게 됐다. 그 길이가 2만2천km를 웃돈다. 지구 둘레의 반 바퀴가 넘는 길이다. 그래서 제주밭담을 두고 ‘흑룡만리’라 부른다. 검은색 현무담 밭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만리’는 끝없이 이어진 길이의 의미로 제주 선인들의 의지와 땀방울을 떠올리게 한다.



거대한 인문유산 ‘제주밭담’

밭담은 농업적 기능에 더하여 빼어난 문화경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인의 개척정신, 자연과 공존의 표징 등 사회·문화적가치도 지닌다. 농촌관광 테마로도 부상하고 있다. 자연유산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거대한 인문유산으로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제주문화를 품은 보물로 길이 보전해야 한다.

지키고 키워가려는 노력들

국가와 세계 농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제주밭담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지구 지정, 테마공원 조성, 아카데미 운영, 밭담축제 개최, 밭담마을 조성, 밭담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밭담 캐릭터 <머들이네 가족>



제주밭담 테마공원



밭담마을 조성



제주밭담 - SHOP



제주밭담상품



밭담길 트레킹



제주밭담축제



밭담아카데미

제주밭담은 하늘에서 똑 떨어지지 않았다.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냈다.
지나온 천 년처럼, 그렇게 빛나는 땀방울로 내내 함께할 것이다!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에 등재된 제주 해녀어업



해녀어업의 의미

제주 '해녀어업'은 2023년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에 등재되었다. 해녀어업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해산물을 채취하는 고유의 전통어업이다. 특히 물속에 잠수하여 바다 지형을 이해하고 수산생물의 서식 장소를 찾고 채취하기 위한 지식(Multi-dimension Knowledge)과 기술(Diving Skill)은 해녀어업의 중요한 전략적 행위이다. 전략적 행위인 물질 작업이 전승되어 온 제주 해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KIFHS)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제주해녀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11월 GIAHS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해녀의 역사

제주 해녀의 역사적 기록은 숙종 28년(1702년) 「조선왕조실록」에는 '잠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숙종 40년(1714년) 「조선왕조실록」에는 '해녀'라고 기록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제주 해녀 수는 총 2,623명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3,613명 대비해서는 27.4% 감소하였고, 2023년 2,839명 대비해서는 7.6%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594명으로 60.8%, 60~69세는 758명으로 28.9%, 50~59세는 144명으로 5.5%, 30~49세는 121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해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30세 미만의 해녀 수는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녀문화

해녀문화는 해녀들의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해녀문화 자원은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 자원으로 구분되며, 유형문화자원은 불턱, 해신당, 해녀옷 또는 물질도구로 구분되고, 무형문화자원은 해녀굿, 해녀노래, 해녀전설 등이 있다.

해녀문화자원

총계	유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			
	계	불턱	해신당	해녀옷·물질도구	계	의례	노래	설화
219	175	48 제주 29 서귀포 19	107 제주 59 서귀포 48	20종 물소중이, 테왁망사리 등	44	35 해녀굿 등	1 해녀노래 등	8 해녀전설 등

- 불턱 : 해녀들이 물질을 준비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
- 해신당 : 제주도 바닷가 어촌마을에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와 해녀들이 '바다의 신 (海神)'을 모시는 장소로서 해신당(海神堂)이 1개소 이상 있으며, 해신당은 바닷가 마을의 신당을 뜻함
- 잠수굿과 용왕굿 : 해녀들의 안전조업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장소는 바닷가에 위치한 해신당에서 잠수굿과 용왕굿이 치러지며, 잠수굿과 용왕굿은 해녀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물 준비 및 굿을 하여 생업과 의례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줌
- 해녀노래 : 주로 돛배의 네(노)를 저어 비양도, 지귀도처럼 섬으로 물질을 나가거나 육지로 출가 물질을 나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테왁을 짚고 물에 들어가 '굿물질' 작업을 할때나 헤엄쳐 나가면서도 불렀음
- 해녀전설 : '진주할망', '산호해녀', '만행이할머니', '용궁올레', '점복할망' 등 제주 해녀와 관련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으며, '애기업개 전설'과 같이 해신당에 얽힌 설화도 있음



해녀복 (모자, 상의, 하의)



해녀물질 (물안경, 테왁, 빗창)

해녀 주요 지역

해녀들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어장’은 「수산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하며, 면허를 받은 어장면적은 제주시 7,738ha, 서귀포시 6,693ha로 총 14,431ha 이다. 해녀들은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에 소속되어 있으며, 수협에서 관할하는 어촌계에 소속되어 마을어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어촌계 분포 및 해녀 마을어장

기타 참조사항



신청 및 접수 관련

- 신청 안내: <https://erahs.krha.co.kr/ko>
- 참가신청 및 전시(포스터 포함) 신청 : 온라인(erahs-korea@naver.com)
전시물품 사전 배송 : 제주오리엔탈 호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47(63166))
- 호텔숙박관련 : 1층 안내데스크
- 참가등록관련 : 1층 컨퍼런스 접수처(카드 및 현금)

문의사항

- 컨퍼런스 관련 문의사항
사무국 공식 E-mail: erahs-korea@naver.com
- 전화문의
제주관광공사 : 064-740-6051 / gahee.kim@ijto.or.kr
운영대행사 : 010-6461-0759
제주오리엔탈호텔 : 1588-1235 / 064-752-8222
- 현장문의 : 제주오리엔탈호텔 2층 ERAHS사무국 방문 또는 전화

